

지역 소식통

정읍시, 후계농 선발 지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2020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한다.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해 정책자금과 경영 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내달 17일까지 선정대상자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선발 기준은 농업 관련 교육 접수, 영농 규모, 경영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우수 후계 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면 토지 구입, 농업용 시설·축사신축 등 농업기반 조성 용도로 세대당 최대 2억 원 용자(연리 1%,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읍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농업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며 "세부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한 참신한 인재들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부안군은 만 6세 미만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중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

만 6세 미만 건강검진은 핵심 발달영역(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을 평가하며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의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50%는 최대 20만원을 지원해준다.

구비서류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차상위경감 대상자는 증명서, 건강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준비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진료검진팀(☎ 063-58073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관광업계 살린다

여행업체 등 홍보·마케팅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비롯한 관광업계를 위해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내 등록된 관광업체에 대해 사업장의 종사자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키

워드 광고, SNS 홍보비, 전광판, 신문,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이다.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정읍시에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선업, 관광식당업, 한옥체험업 등 59개소 업체다.

사업장의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3인 이하는 250만원, 3인~6인은 300만원, 7인 이상의 사업장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정읍시청 관광과를 방문해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 안내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063-539-5234)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에 처해 있는 관광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구마 우량종순 분양신청 하세요"

정읍시농기센터, 내달 10일까지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고구마 품질향상과 수량증대를 위해 바이러스가 없는 고구마 우량종순 보급에 나선다.

센터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고구마 우량종순 총 3만 주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품종은 국내육성품종인 풍원미, 호감미, 진율미, 단자미로 농가당 최대 400주(품종당 200주)를 신청할 수 있다.

고구마는 다년간 재배할 경우 발생하는 덩굴쪼름병 등의 병해와 바이러스 발생률이 높아져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이번 공급하는 우량종순은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해 무(無) 바이러스 상태로 조직 배양한 후 순화 증식과정을 거쳐 생산한

조직 배양묘다. 조직 배양묘는 일반묘에 비해 20% 이상 증수가 가능한 데다 모양과 과피의 색이 우수하고 맛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는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고구마 우량종순 총 3만 주를 공급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고구마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3~4년 단위로 종자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배양묘 공급을 통해 품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읍 고구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 총력전

높을고창카드 10%할인·1225만원 상당 상품권 구입 등

고창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카드형 고창사랑 상품권 '높을고창카드'를 출시하고, 이달 16일부터 10% 할인판매와 카드상품권 한도 상향(최대 60만원)을 실시했다. 이는 4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판매액은 32억원을 돌파했다.

은 1225만6000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과 석정온천 이용권을 구입해 코로나19 방역업무로 인한 조합원의 노고를 위로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 확대 운영과 매주 2회 관내식당 이용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협력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60만원) 지원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높을고창카드'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코로나 여파로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속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대면 영농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19 차단 '비대면 영농지도' 강화

정읍시농기센터, 전화상담·SNS·우편 등 적극 활용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유지 속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대면 영농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해 농기센터는 3~4월은 한해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농업인 교육을 연기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천을 위해 전화상담, SNS, 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영농지도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기센터는 농업인이 영농정보를 접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요 작물에 대한 시기별 맞춤형 영농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농업기술정보지와 재배기술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23개 읍면동에 이·통장회의 자료에도 영농지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득이 지역 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는 농업인을 위해 지역 내

모든 농업인상담소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있다.

수시로 사무실을 소독하며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읍시 농업인상담소는 읍면 지역 15개소, 동 지역 1개소 총 16개소로 새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등에 지역의 적합한 작물에 대한 다양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는 곳이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철을 맞은 농업인에 빈틈없는 영농정보 제공에 힘을 쏟겠다"며 "현재 농업인상담소장은 다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한 농업전문가들로 언제든지 전화 등 비대면 영농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영농상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에 정무원 농업인상담소를 준공했고, 올해는 태인면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4개월간 '급여 30% 기부' 동참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힘든 시기에 국가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 기부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권익현 군수가 기부한 금액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 후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저소득계층 및 위기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기부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활동 등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춰 군민들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